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출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3월 2일 하노이시를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숙소에서 웬 등 종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황 풍 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상임부주임, 월남공안성 부상인 부이 반 남상장이 배웅해드리였다.

조선과 월남사이의 친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세계평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웬 등 종 하노이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숙소에서 찾아온 월남당과 정부, 하노이시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 숙소를 출발하시였다.

이날 하노이시민들은 조선과 월남친선의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고 귀국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뜨겁게 환송하였다.

숙소로부터 전용렬차출발역인 동당역에 이르는 수백리 긴 연도에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 흔들며 뜨거운 마음으로 배례드리였다.

동당역과 역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환송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아름다운 민족옷차림을 하고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손에 들고 늘어 서있었다.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보 반 트영선전교육부장, 마이 락엔 중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판공실 주임, 레 호아 이 쯤 외무성 부상, 팜 티 호영 타이 월남공산당 랑 쟈주위원회 비서, 레 바 빙 우리 나라 주재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월남당 및 정부간부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또한 김평길 월남사회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도에 펼쳐나온 수많은 하노이시민들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면서 역에 도착하자 군악대의 환영곡이 울리고 역앞에서 기다리던 환송군중들이 친선의 정을 안고 기발과 꽃다발을 흔들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월남방문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용차에서 내리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오래동안 손을 저어 주시며 따듯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녀성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면서 환송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월남의 당 및 정부간부들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문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친절하고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신 전용렬차는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월남인민의 굳은 친선단결의 정을 실고 동당역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방문은 웬 푸 쯡주석과 월남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사회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속에서 공고화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힘있게 과시하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두 나라 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3월 5일 전용렬차로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리용호외무장, 노광철인민무력장, 김여정, 리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박정남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장, 국장들이 함께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월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역구내에 달려나온 군중들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는 마음안고 원수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릴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새벽 3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신 전용렬차가 평양역구내에 서서

히 들어서자 원수님을 자나깨나 꿈결에도 그리며 몸서리쳐 돌아오실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온 온 나라 인민들의 열광같은 흥분의 정과 세찬 격정의 분출인양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평양하늘가를 가득 채우며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렬차에서 내리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영접하는 의식이 평양역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남녀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은 우

리 조국의 무궁번영과 우리 인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하여 2만여리의 머나먼 로정을 오가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고 조국에 무사히 돌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중나온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시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영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